

순천시, 트롯뮤지컬 '순천소녀시대' 공연 성료

글 배우지 못한 소녀들 할머니 작가 되기까지 파란만장 이야기 트롯 구성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책 발간 수익금 마스크 기부운동 전달

순천시에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글을 배우지 못한 소녀들이 할머니 작가가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트롯으로 구성한 창작뮤지컬 '순천소녀시대' 공연이 성료되었다.

'순천소녀시대' 공연 70분 시간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 진한 감동을 전해 주면서 배우들에게 뜨거운 박수 갈채로 화답했다.

공연은 철저한 방역소독, KF94 마스크 착용, 공연장 거리두기 실천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시민들의 반응은 "우리 엄마와 같은 삶의 애환이 나를 울렸다.", "주변이 깜깜해서 마음껏 울고 코로나19를 잘 견뎌내고 있는 우리에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소녀시대는 늦은 나이에 글과 그림을 배우 일약 작가의 반열에 오른 할머니들의 파란만장한 삶이

노래와 함께 만들어진 창작 트롯 뮤지컬이다.

할머니들은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책을 발간했고, 판매 수익금 일부를 순천시 마스크 기부운동에 마스크 3,000장을 기부하여 마지막 공연에 허석 순천시시장에게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여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공연이 힘든 시기에 지역 공연예술계에 코로



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순천시민들이 울린 이 감동이 전국 각지에 전해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시 청년정책협의체 발대식·온라인 워크숍

광양시는 최근 광양청년포터에서 비대면(온라인) 청년정책협의체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및 청년정책협의체 대표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명의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1부 행사에서는 정현복 광양시장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전수하고,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 도시 광양 건설'을 위한 청년결의문 낭독과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진년활동가 초청 강의를 통해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역할을 조인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우리는 청년인구비율이 27.9%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지만, 매년 청년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우리시 청년대표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흥군-공공연대노조, 임금·단체협약

고흥군은 18일 팔영산홀에서 공무원 단일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2020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상동 부군수와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등 16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6차례의 실무교섭과 실무협의 등을 거쳐 체결에 이르게 됐다.

단체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의 대의원의 시간 보장 ▲근로시간 면제 확대 ▲징계위원회 노조간부 참여 등 조합 활동을 보장하였고, ▲병가 유급보상 ▲재해보상 보장 ▲육아휴직 및 경조사 특별휴가 확대 등 직원 복리후생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임금협상에서 환경미화원은 체력단련비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기본급 인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로보수

원은 낮은 급여를 대폭 인상하여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반 공무직은 기본급, 직군수당 등 7개 항목에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였다.

정상동 부군수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을 군정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은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준 고흥군 관계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공무직 근로자들도 균형발전을 위해 자발적·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허석 순천시시장,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수상

시민 중심 시정철학 바탕으로 시민주권 강조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18일 한국공공정책학회에서 주관한 제5회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지방행정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은 매년 대한민국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략하고 수상자 발표로 대신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시정의 중심은 시민이어야 한다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참여, 시민주도, 시민주권을 강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한 것이 높이 평가받았다.

광장도론, 별밤도크 등 직접민주주의를 확산해 나가고 있고, 지역 공동체를 강조하며 김장나눔대축제, 코로나19 생계 어려움 해소를 위한 권분운동, 자원봉사활동화 등 시정의 대소사에 시민이 참여하고, 민주주의 학교 등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순천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호

남 3대도시에 등극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장애인을 비롯해 여성·아동·노인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천만그루 나무심기·한평정원 페스티벌 등을 통해 도심 곳곳을 정원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10년 만에 다시 유치해 도시전체를 정원으로 완성하고, 정원을 산업으로 생태를 경제로 연결시켜 생태경제도시를 완성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큰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모두 순천시민 여러분의 덕분이다"며 "3E(생태·교육·경제) 프로젝트 실현으로 30만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순천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산간벽지까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보성군은 지난 8월부터 추진한 산간벽지 초고속인터넷 망 구축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산간벽지 단독가옥과 저속 인터넷 이용마을도 빠른 속도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졌다.

보성군은 기존 전화회선 사용으

로 느리고 고장이 잦던 마을 등 40여 개소에 최대 1Gbps 속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자비로 케이블을 설치해야했던 90여개 소도 무료 광케이블을 설치해 주민 부담을 덜었다.

이번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로 보

성군은 군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터넷망 구축으로 스마트 팜, 보안 CCTV 운영, 원격수업 등 미래지향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초고속인터넷 설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라남도, (주)케이티와 매칭펀드(1:1:3)로 추진된다.

보성=김택순 기자

여수형 공공배달앱 명칭 공모 시민 의견 모아 결정

여수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주문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여수형 공공배달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접수 마감한 '여수형 공공배달앱 명칭 공모'에 최종 509명이 참여해 75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접수했다.

시는 접수된 전체 명칭을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시민소통광장 설문조사를 실시해 60개 명칭을 선정 한 후, 다시 설문조사를 거쳐 20개 명칭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이후 상징성, 대중성, 적합성, 참신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을 선발해 시상할 방침이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4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이며, 여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